

본문

프랑스 섬의 포르루이● 뒤편으로 솟아 있는 산 동쪽 사면에는, 한때 경작지였던 곳에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작은 오두막 두 채가 보인다. 두 집은 커다란 바위로 에워싸인 분지에서도 거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, 이 분지로 통하는 길은 북쪽으로 트인 입구 하나밖에 없다. 왼쪽으로 보이는 산은 조망의 언덕이라 불리는데, 사람들은 여기서 섬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신호를 보내곤 한다. 그 아래쪽에는 포르루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다. 오른쪽으로는 포르루이에서 왕굴나무 지구로 통하는 길이 나 있으며, 길은 그대로 같은 이름의 성당까지 이어진다. 성당은 대나무가 늘어선 큰길을 끼고 너른 벌판 한가운데 서 있다. 그리고 더 멀리 저편에는 섬 끝자락까지 뻗어나가는 숲이 있다. 앞을 바라보면 펼쳐지는 바닷가에는 무덤 만(灣)이 모습을 드

● 프랑스의 옛 거리 단위로 1리외(lieue)는 약 4km.